

다른 눈, 다른 아름다움

시각장애 어린이 미술활동 이끄는 '우리들의 눈'

'시각장애'인이 '시각예술'을 한다. 이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림을 그려?'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 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읽는 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곧잘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어쩌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넘보지 못할 이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 시각장애아들이 아티스트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열심히 일궈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인 '우리들의 눈'이다. 제2의, 제3의 눈을 찾아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활동, 그 속에 축적된 그들만의 철학, 시각장애인 예술에 주목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봤다.

글 이해정 편집부 | 사진 박정훈

1

삼청동의 구불구불하고 좁은 언덕을 올라가다보면, 환한 주황색 간판이 인상적인 우리들의 눈 사무실이 보인다. 아담한 사무실의 절반은 작은 갤러리로 꾸며져 있고, 시각장애어린이들이 만든 예술작품들을 전시 중이다. 독특한 해석이 신선해서 눈길을 잡아끈다. 언뜻,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손'이 유난히 크게 묘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눈이 아니라 손이 주요 인지수단이기 때문일까. 갤러리 한켠에 놓인 방명록에는 우연히 이끌려 들어왔다며 '삼청동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 작품에 감동받고 갑니다.'라는 글이 씌어 있다.

우리들의 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본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되묻는 전문예술인들의 모임이다. 이날 인터뷰를 위해서, 협회 대표이자 화가인 업정순 씨, 어린이책 편집자인



이지원 씨, 미술교육자인 고주경 씨와 김지연 씨가 모였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여러 자료들을 먼저 꺼내 보여주었다. <우리들의 눈> 전시에 관한 언론 기사 스크랩, 시각장애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제작한 점자축삭책과 박물관 카탈로그 등. 얼핏 훑어보기만 해도, 그들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단박에 드러난다.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 그것도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는 이 단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문화예술 안녕하세요. 갤러리 구경 잘 했습니다. 우선 협회명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할까요. 원래는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조사를 좀 했더니 '우리들의 눈'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것 같던데요.

업정순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는 공인단체로 등록할 때 사용한, 말하자면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사실 그런 거창한 이름보다 먼저 '우리들의 눈'으로 활동



우리들의 눈은 아티스트, 작가, 큐레이터, 교육자, 출판기획자, 디자이너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시각장애'를 매개로 모여 시각장애인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이다.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는 'Another way of seeing'이고요. 저희 프로젝트나 콘셉트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이름이죠.

문화예술 네.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는 외우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들의 눈은 한 번에 와닿네요. 처음에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라는 이름을 듣고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단체라고 멋대로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인데 비장애인들만 있어서, 약간 의아했어요.

엄정순 일단 처음에 저희는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미술교육을 뒷받침하는 팀이었고, 일차적으로 비장애인들, 특히 전문예술가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였어요. 자문의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애써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영입해서 어떤 모양새를 맞추려는 것이 오히려 더 억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 우리들의 눈이 창설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처음 시작은 어떤 거였나요?

대개 사람들은 첫 발을 내딛게 된 '최초의 결정적 순간'을 궁금해하고, 그런 만큼 질문을 받는 사람은 괜히 더 멋지게 포장하려는 욕심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엄정순 씨는 시작은

개인적인 거라며 말을 흐린다. 궁금증이 생겨,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냐고 다시 한 번 조심스레 물어보자, 그런 건 전혀 아니라면서 말을 꺼낸다.

엄정순 생각지 못한 우연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전에 한 독지가가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성당을 지어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말아서 할 분이 안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건국대 교수로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돌고 돌고 돌다가 우리 학교까지 들어온 거죠. 저를 포함한 미술대학 선생님들이 참여했어요. 결국 그 프로젝트 자체는 무산됐는데, 그때 시각장애 아이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된 거죠.

문화예술 그때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끌린 이유가 뭐가요?

엄정순 저는 직업이 화가니까, '본다'는 것이 작가로서 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안 보인다는 게 뭘까'를 진지하게 되문게 됐어요. 24시간 눈을 뜨고 있지만, 자기 전에 생각하면 뭘 봤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봐서, 진정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죠.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나와는 다르지만 고유한 세계를 가진 아티스트로. 내가 치료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너무나 신선한 친구, 동료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묻자, 엄정순 씨는 조금 전과는 달리 눈을 빛내며 '우리는 학맥이나 인맥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주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뜻이 통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는지, 한 번도 공고를 내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한 명 한 명 자연스럽게 합류해, 지금은 열 명 안팎의 인원이 꾸준히 활동한다고 한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이 그만큼 강해서일까. 옆에서 계속 조용히 들던 이지원 씨가 불쑥 말을 꺼냈다.

이지원 우리 협회의 원동력이 뭐냐는 말씀 같은데, 저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3~4년 전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저를 이곳으로 잡아끈 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단체라는 점이에요. 내가 쓰다가 남는 걸 주는 단체가 아



왼쪽부터 화가이자 대표인 엄정순 씨, 미술교육자 고주경 씨, 어린이책 편집자 이지원 씨, 미술교육자 김지연 씨.

니고요. 예를 들어 주말에 밥 퍼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 것보다 제가 어린이책 편집자데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여기서 점자촉 각책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자인 고주경 선생님 같은 분은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미술수업을 하고, 사회학자인 주윤정 선생님 같은 분은 저희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을 연구하고요. 모두 자기 재능의 정수를 여기에 바치기 때문에 발 끊기가 참 쉽지 않아요. (웃음)

문화예술 여기는 여타 운동단체와는 느낌이 약간 다른데요.

엄정순 다른 NGO나 운동단체처럼 세상을 바꾼다는 거창한 이슈보다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분도 있겠지만, 단체를 설립한 저의 입장만 생각해도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만나며 해소가 됐던 것이 동기였어요.

문화예술 그러니까 ‘본다’는 것에 대해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미술은 ‘시각’예술로 분류되잖아요. 듣다보니, 꼭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정순 그건 여기 모인 사람들마다도 저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본다’는 걸 일반 통념에서는 항상 시각적인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는 아이들도 말끝마다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장애로 치부했지만, 저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장애로 보지 않고 하나의 창조적인 새로운 감수성으로 봤어요. 실제 시각장애 어린이들과 작업하다보니, ‘보는 능력의 부재’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예술작품을 통해 알게 돼요.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2

문화예술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된 활동인 미술워크숍부터 얘기해주세요.

엄정순 사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미술워크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술워크숍은 일단 저희 협회 회원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마치 무슨 통과 의례처럼.

고주경 시각장애 아이들을 직접 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미술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은 시각장애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속에서 찾아내요.

그들이 ‘통과의례’라고 말하는 미술워크숍은, 우리들의 눈이 창설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꾸준히 해왔고 동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다. 그들은 맹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미술워크숍은 그들과 시각장애 어린이들과의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눈과 시각장애아들은 ‘예술’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의 활동영역은 미술워크숍을 통해 넓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그들의 또다른 활동인 미술



최고의 재료로, 다양한 예술창작 경험을 하게 한다는 우리들의 눈의 미술워크숍.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시각장애 어린이들은 점차 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독창적인 예술작품들이 탄생했다. /사진 우리들의 눈 제공

관 체험, 점자촉각책 제작도 미술워크숍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고주경 지금은 여덟 개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가르쳐요. 정규수업에도 들어가고, 방과후 수업도 하고요. 그런데 고등부는 미술수업이 없는 학교도 많아요.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미술교육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입시 때문에 미술수업이 천대받는데, 하물며 맹학교에서는 더 하겠네요.

고주경 그렇죠. 미술수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빼먹기 일쑤예요. 학교가 증축, 개축하는 경우엔 미술실을 아주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면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 하죠. 또 학교 자체에서도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미술워크숍을 시작한 10년 전만 해도,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미술수업이 무슨 필요 있냐는 반응이 더 많았다. 특히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미술’은 더더욱. 그래서 처음엔 오히려 맹학교 선생님들조차 이들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꾸준한 활동에 설득 당했는지, 이제는 맹학교 자체적으로 미술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술수업의 비중도 높였다. 엄정순 씨는 ‘씨를 뿌리고 10년쯤 지났더니 점점 자생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자, 소마미술관에서 했던 특별워크숍 사진을 보여주었다. 소마미술관에서 한빛맹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초청해서



진행했던 수업이었는데, 아이들은 미술관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주어진 생화를 벽에 이리 저리 붙이기도 하고,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기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즐거워보였다.

문화예술 수업재료는 보통 어떤 것으로 쓰나요? 이 날은 꽃으로 한 것 같은데요.

고주경 아이들에게 재료도 최고의 것으로, 다양하게 주려고 노력해요. 쓰던 건 안 주죠. 물감도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걸로 주고요. 지속적으로 수업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나 무슨 무슨 재료로 주세요’ 하는 단계까지 와요. 뭘 만들지 미리 생각해 오기도 하고요.

엄정순 시각장애를 하나의 창의적인 요소로 이해하긴 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그 답이 우리가 아니라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시각장애를 가짐으로 해서 다른 지각방법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촉각이나 후각 같은.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진하게 나오는 많은 질문과 표현들이 있어요. 저희가 우선 강조하는 점은, 가능한 개개인의 현실에 집중해서 일일이 대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요. 왜냐하면 장애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예술을 창작하려면 일단 사람이 열려야 해요. 저희가 강압적으로 ‘선은 이렇게 그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뭘가 만들고 싶다는 게 자발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아이들은 본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감을 갖고 뭘가 해 내요.

고주경 한 선생님이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한 학기 정도로는 아이들에 대해 잘 알 수 없거든요. 아이들 심경의 변화를 알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엄정순 우리의 접근방법이 또 조금 다른 것은, 아이들을 독자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을 하나 그어도 뭔가 자기다운 선이 나오죠. 예술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그 사람만의 새로운 무언가가 창조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미술워크숍은 평상시 예술창작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창조행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예요. 그게 축적되다보면 아이들이 좀더 세상에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미술워크숍이 다른 수업이나 아이 성격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문화예술 예를 들면요?

김지연 손톱 물어뜯는 행동이 치유된다거나, 징징거리던 아이가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죠.

문화예술 듣다보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받은 미술수업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부러운데요. (웃음)

1997년 충주성모학교에서 처음 시작한 미술워크숍은 점차 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로 범위를 확장해왔다. 예술창작의 경험이 거의 없던 시각장애 아이들은 처음엔 몹시 낯설어했지만, 곧 예술환경에 익숙해졌고 점차 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의미 있는 예술작품들이 탄생했다. 우리들의 눈은 그 작품들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가능성, 그들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눈> 전시였다.

엄정순 처음부터 저는 아이들 작품의 위치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의 전시가 아니라,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현대미술이라는 게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창의력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시각장애 아이들의 작품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주장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고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요. ‘럭셔리’라는 개념이 아닌 ‘고급’. 그동안 장애를 너무나 열등하고 우스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시각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시장 하나

를 선택하는 것이나 카탈로그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었어요. 이들을 대변하는 도구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기존의 장애인 예술이 소개되는 방법은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대부분 학예회 수준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수준으로만 보는데, 저희들이 아이들 작품을 수준 높게 보여줬더니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우리들의 눈> 전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회씩 열렸고, 특히 1998년과 2002년은 일본, 영국과 교류전으로 기획하기도 했다. 전시를 본 관람객의 반응은 어땠냐고 묻자, ‘일단은 다들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죠.’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시에서는 시각장애아들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담은 필름도 상영했다.

엄정순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런 전시가 없었으니까 전시 자체에 일단 놀라고, 아직도 ‘시각장애’ 어린이가 ‘시각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죠. 놀라움 그 자체로 다가오니까요.

김지연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만들어요?”예요.

문화예술 실은 저도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엄정순 몸의 상태가 우리와 이미 달라서, 우리가 그냥 얼추 이럴 것이다 상상하는 것이 상이예요. 그리고 제가 관찰해보면, 전맹인 아이들이나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는 애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고주경 나중에 시력을 잃은 아이들은 자기가 예전에 봤던 기억에 너무 매달려 있고, 잔존시력이 있는 아이들은 조금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남의 것을 보느라 산만해요. 시력이 아예 없는 아이들은 온전히 자기 몸의 느낌에 맡겨서 훨씬 자연스럽고 결과물이 좋죠.

엄정순 <우리들의 눈> 전시할 때 한 꼬마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대뜸 “어? 애네도 느끼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이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엔 ‘핸디캡’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핸디캡’은 그야말로 ‘손으로 덮어놓은 상태’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덮어서 가려놓은 거죠. 때문에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가려서 안 보였던 거죠.

그 꼬마 아이의 말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 애네도 사람이었네?”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은 비단 그 꼬마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예민하고 풍부한 감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손으로 덮어놓고’ 보려고 들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눈> 전시가 깨려고 하는 편견도 바로 그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10년 전에 이미 이런 활동들을 시작했다. 특히 우리들의 눈과 함께 전시회를 했던 일본의 ‘톰갤러리’는 시각장애인 전용 미술관이자 장애예술교육의 정보센터 같은 곳이다. 톰갤러리는 “시각장애인도 로망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모토 아래, 시각장애인들이 작품을 자유롭게 손으로 만져 감상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작품에는 점자 설명문을 붙여 놓는다.

엄정순 사실 톰갤러리는 저희의 케이스 모델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 관장님이 시각장애인 아들을 뒀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으로 헌신하는 분이죠. 저희도 거기서 참 많이 배웠어요.

고주경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장애인예술운동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미술교육을 받은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작업을 쭉 해나가기도 해요. 한국도 학교에서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센터 같은 곳이 생겨서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게 돼야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작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수업을 받는 아이들 중에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꽤 있지만, 대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찌감치 좌절해버려요.

<우리들의 눈> 전시는 2002년 이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다. 아이들 작품이 그렇게 금방금방 대량생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인원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판을 벌여놓은 덕인지, 이들의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생겼다. 얼마 전 평화화랑에서 열린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전시가 그렇다. 우리들의 눈이 10년간 미술워크숍을 진행해온 맹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시각장애아들과 함께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전시회를 연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은 우리들의 눈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났다고 한다. 심지어 전시기간에 작품이 전부 팔리기까지 했다. 또한 작년에는 오히려 우리들의 눈이 현대미술 장르 안으로 초청받기도

했다. 예술과 공공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공공의 순간>이라는 전시회에서도. 시각장애아들의 작품, 점자촉각책 등이 설치미술가 최정화나 ‘하자센터’와 같은 다른 예술 프로젝트와 함께 전시됐다.

3

얘기를 나누다보니, 이번 호 좌담에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던 시각장애인 김정호 씨가 우리들의 눈과 아는 사이였다. 우리들의 눈은 김정호 씨를 비롯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런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완전히 ‘시각적으로 세팅된’ 곳 아니었던가?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감상하는지부터 언뜻 감이 잡히지 않는다. 김지연 씨의 설명에 의하면, 우선 시각장애인에게 누구의 작품인지, 색깔과 형태는 어떤지, 미술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설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더해서 말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감상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해설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감상하는 것이라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할 것 같네요. 선천적인 장애아들은 색깔이나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훨씬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요?

고주경 오히려 상상력은 훨씬 풍부해요.

엄정순 시각장애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살짝 눈 감고 막연히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느끼고 감상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감상하는 거죠.

문화예술 미술관에 가서 감상하는 것과 집에서 화보로 감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죠?

김지연 미술관 공간이 주는 느낌도 중요해요. 말의 울림 정도나 습도가 다 다르니까요.

고주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 자체만 보는데, 이 사람들은 바닥부터 모든 걸 다 느끼면서 들어가거든요. 훨씬 더 풍부하게 감상하죠.

엄정순 그런 면에서 거꾸로 저희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시각장애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본인만의 공명을 만들어내요. 발로 바닥을 두드린다거나 해서.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여긴 우리 교실만하네.’ 딱 알아내거든요. 단지 시각적인



민속박물관을 '손'으로 관람하고 있는 시각장애아들과 우리들의 눈. 전시물을 손으로 만져보고, 민속탈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했다. 이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지금은 완전히 시각적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우리들의 눈 제공

채널이 아닐 뿐, 다른 채널들을 통해 아주 본능적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각만 사용해서 보잖아요. 특히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몇 가지 봐야 하는 작품 같은 게 있고, 또 개개인의 취향이 분명하니까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역설적인 건데, 우리는 많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놓쳐요. 시각중심의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랄까, 그런 것을 저는 아이들을 통해 간혹 느껴요.

‘눈’으로 세상을 읽는 데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오감 중 가장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건 단연 시각이다. 마치 인간의 몸에서 꼬리뼈가 사라졌듯,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은 점점 퇴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문득 들었다.

좋은 미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좋은 미술작품을 많이 보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 맹학교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는 일정이 없냐고 묻자, 있긴 있지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단 미술관 측에서 어떻게 관람을 시킬지 난감해하는 상황이란다. 그래서 엄정순 씨 표현에 따르면 ‘앞에 있는 친구 등만 만지면서 쫓아가는 체험’만 한다는 것이다.

고주경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박물관처럼 재미없는 견학이 없었다는 거

예요. 유리로 다 막아놔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들이 분명히 즐거워하죠.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관 감상은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미술관 체험을 프로그램에 계속 넣으려고 해요.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엄정순 민속박물관 시각장애어린이용 카탈로그를 만들었어요. 이런 카탈로그 하나만 있으면, 시각장애 아이들 혼자서도 관람이 가능해요. 보통은 어린이용 카탈로그에 별로 투자를 안 하는데, 이건 촉각적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열 배 더 들어요. 거의 사례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저희 활동으로 인해 민속박물관 측도 점점 시각장애인을 관객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관람과 체험프로그램이 완전히 제도화됐어요. 다른 미술관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4

10년 동안 축적된 그들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풀어내다보니, 점자촉각책에 대해선 아직 하나도 묻지 못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 있었다. 마음이 조금해졌다.

문화예술 점자촉각책은 어떤 취지로 만드는 건가요?

엄정순 이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공통 기호, 개념들을 이미지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지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점자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세요? 눈으로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쉽거든요. 특수교육하는 분들도 다 만져서 읽는 게 아니라 보고 읽어요. 만져서 읽으려면 정말 거의 죽을힘을 다해야 해요. 1년 정도 훈련해도 될까 말까? 절대로 안 읽혀요. 그래서 시각장애 아이들은 시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자를 안 배우려고 해요.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점점 시력이 쇠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책을 어떻게 넘기는지 몰라요. 도서 환경이 정말 너무 너무 열악해요. 보통 비장애 아이들은 읽을 책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촉각책 만들면서 내용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신경쓰는 것 중에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책이란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니까 ‘점자



시각장애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약속들을 이미지화해서 책으로 만든 점자촉각책. /사진 박정훈, 우리들의 눈 제공

배워야 한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점자도 가능한 일찍 접해야 촉각이 점자를 읽을 수 있게 예민하게 발달하거든요. 김정호 씨 같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똑똑한 분도 아직 석가탑, 다보탑, 빗살무늬 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최소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점자촉각책에 담아서 전해주고 싶어요.

이들이 손수 만든 점자촉각책 몇 권을 펼쳐봤다. <보물상자>라는 책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슬이나 솜털 등이 붙어 있어 만져볼 수 있었고, <모든 지도는 말을 해>라는 책에는 한국지도, 세계지도부터 밤에 이불에 싼 오줌지도까지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책에는 만져볼 수 있는 그림, 입체물과 함께 스토리가 점자와 목자로 씌어 있었다. 점자촉각책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너무 훌륭해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엄정순 이걸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완전히 새로운 도서 형태예요. 종이 하나를 고르는 것도 그렇고, 동그라미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거의 작품 수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문화예술 시각적인 것까지 신경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각장애 어린이가 본다면 어차피 시각적인 것은 보지 못할 텐데요.

엄정순 저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이 못 본다고 비주얼한 면에 신경 안 쓰고 대충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력이 약한 거지,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점자촉각책에서는

비주얼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도 촉각적인 효과만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만큼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 책 한 권이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이지원 보통 한 권 만드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회의해야 해요. 계속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샘플이 완성되면, 2주건 3주건 밤새 굴러서(웃음)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시행착오가 대단히 많아요. 하다못해 풀은 어떤 걸 쓸까, 종이 접착제는 뭘 쓸까, 이렇게 제본하면 넘어갈까, 이런 걸 저희끼리 일일이 다 해봐야 되거든요.

문화예술 그건 또 왜죠?

이지원 아이들이 계속 만져봐야 하거든요. 단단히 붙어 있고, 틀이 지속돼야 하니까, 그런 게 중요하죠.

엄정순 또 시각장애인들은 왼손으로 점자를 읽거든요. 양손을 다 쓰는 신체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해요.

문화예술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나요?

엄정순 주제는 막연히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제로 삼죠.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이 결핍된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케일의 개념이에요. 거리감이 부족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약해요. 공간을 알아야 하니까 책에서 '지도'를 주제로 한다거나 하죠. 또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는 교과서 외에 점자로 된 참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교과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고주경 일반 아이들은 동화책이나 미술책을 많이 보면서 크잖아요. 시각장애 아이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죠.

문화예술 그러니까 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약속 같은 것을 주제로 삼는 거군요.

이 정도만 들었는데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잘 엮어서 스토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 내용을 촉각으로 전환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가령, 연필을 촉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연필은 그렇다 치고, 빌딩은? 코끼리는?

이지원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어요. 설명하려는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것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기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연필로 예를 들면, 아예 연필을 그대로 붙여놓는 방법은 전자가 될 테고, 엠보싱을 붙여서 연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후자의 방법이겠죠. 그런 기호들이 풍부해지고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면, 느낌을 대체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촉각의 기호에 훈련되어 있어야 해요.

문화예술 저로선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지원 어려운 거예요. (웃음) 가령, 연필처럼 부피가 작기만 해도 책 속에 직접 붙여넣을 수 있지만, 새를 느끼게 한다고, 새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새의 느낌을 축약해서 표현해야 해요. 촉각으로 읽는 거죠.

문화예술 그렇네요. 마치 자동차를 표현한다고 책 속에 붙여넣을 수 없는 것처럼요.

엄정순 저희가 엠보싱으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촉각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층위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책을 볼 때 활자가 다양한 것처럼. 점자촉각책이 나아가야 할 숙제이기도 해요.

이들의 점자촉각책은 올해 <창비> 출판사에서 대중출판될 예정이라고 한다. “시각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그동안은 책을 사주고 싶어도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바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이지원 씨의 표정은 몹시 들떠 있었다.

엄정순 10년을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 아주 작은 변화긴 하지만, 변화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참 뿌듯해요. 저희끼리만 좋은 의도 갖고 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확산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그래요. 지금은 향후 10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심 중이에요. 지금까지는 가내수공업처럼 저희끼리 모여서 내부적으로 활동했는데, 그걸 조금 전문화, 세계화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실은 행사를 하나 기획하고 있어요. 내년 가을쯤 서울에서 여는 걸 목표로, ‘국제시각장애인 아트 페스티벌’을 구상 중이에요. 앞으로 우리들의 눈이 시각장애 예술에 관한 정보 센터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가면서 많은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에는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나눠야죠. 시각장애미술교육이 열악한 다른 나라에 파견워크숍을 하고, 점차 자생적으로 미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거나. 그런 것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도 내년 페스티벌과 함께 구상하고 있어요. 자꾸 말해야 꿈이 실현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꿈을 꾸는 것은 아름답다. 그들이 꾸는 꿈을 엿듣는 내 마음까지 두근거렸다.

2007년 7월 27일 삼청동 우리들의 눈 사무실에서